

1. 클래식 기타 입니다.

클래식 연주에 주로 사용하며 나일론 123번 줄은 나일론 줄이며 456번은 스틸와이어로 둘레가 감겨 있습니다.

2. 포크 기타 입니다.

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고 사용하는 기타입니다. 줄은 스틸 줄로 되어 있습니다.

3. 오베이션 기타 입니다.

오베이션 기타는 몸통뒤쪽이 플라스틱으로 둥글게 되어있으며 몸통 가운데 사운드 홑이 없고 작은 구멍들이 뚫려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통기타와 같습니다. 기타 내에 픽업이 달려있어 전기 기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전기 기타 입니다.

그룹사운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펙터와 파워앰프를 사용하여 다양한 연주가 가능합니다.

5. 베이스 기타 입니다.

일반 기타에서 12번 줄을 없애고 3456번 줄만을 사용합니다. 파워앰프를 사용하여 저음연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기타 튜닝을 잘하는 방법은 ...

가장 손쉬운 방법은 피아노를 이용하여 튜닝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1~6번 줄까지 피아노의 음을 치면서 튜닝을 합니다. 소리가 공명이 되면 음이 맞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1.2번 줄은 감을 때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요즈음 나오는 조율기를 이용하여 튜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율기로 정확히 맞춘다 하더라도, 음이 맞지 않으면 코드를 누르고 쳐도 화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각적인 튜닝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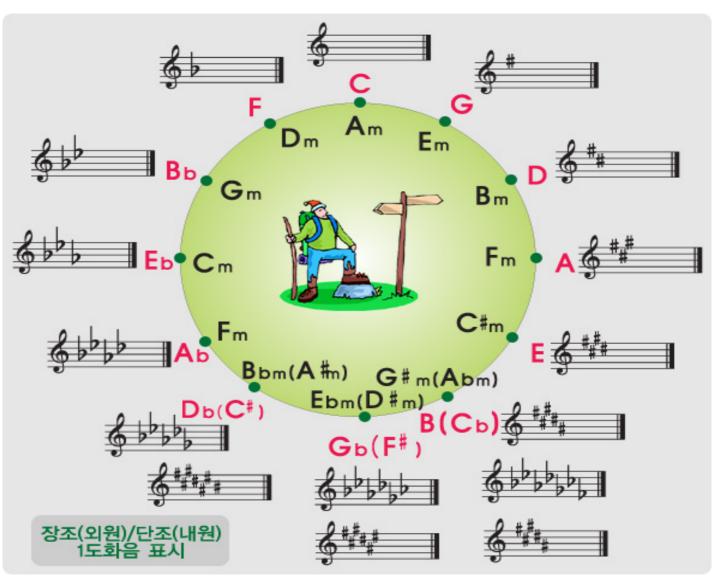
※ 기타가 망가진 경우 아무리 조율을 해도 음지 맞지 않는 기타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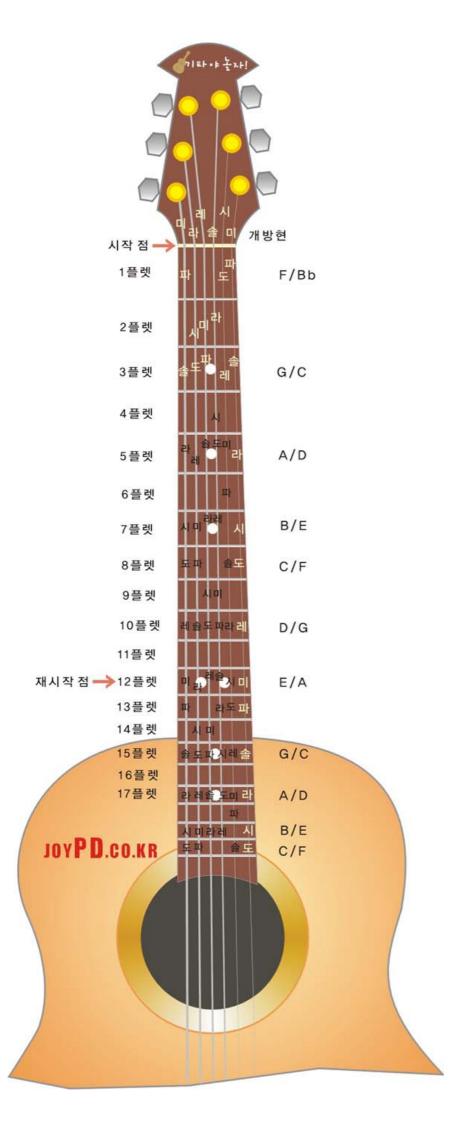
1. 조바꿈을 하여 어려운 코드도 쉽게 연주한다.

초보의 경우에 악보에 #이나 b이 많이 붙어 있으면 일단은 코드에 #, b이 붙게 되면 당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바꿈을 하고 카포를 사용하여 쉬운 코드로 연주를 할 수 있다. ※ 위의 코드변환테이블을 이용하면 초보자도 쉽게 조바꿈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4개이면 올림다단조에서 코드가 C#m, F#m, G#7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는 아래 그림과 같이 카포를 4번 플랫에 고정시키고, C#m→Am, F#m→Dm, G#7→E7으로 고쳐서 쉽게 연주를 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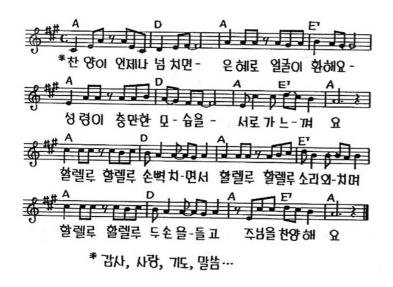
#계열 [파도솔레라미시]	장조.단조 코드			b 계열	장조.단조 코드		
	1 도	4 도	5 도	[시미라레솔도파]	1 도	4 도	5 도
	С	F	G7				
	Am	Dm	E7				
#	G	С	D7	b	F	Bb	C7
	Em	Am	B7		Dm	Gm	A7
##	D	G	A7	bb	Bb	Eb	F7
	Bm	Em	F#7		Gm	Cm	D7
###	Α	D	E7	bbb	Eb	Ab	Bb7
	F#m	Bm	C#7		Cm	Fm	G7
####	Е	А	B7	bbbb	Ab	Db	Eb7
	C#m	F#m	G#7		Fm	Bbm	C7
#####	В	E	F7	bbbbb	Db	Gb	Ab7
	G#m	C#m	G#7		Bbm	Ebm	F7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가서 제자삼으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손을 높이 들고



해뜨는 데부터



사랑은



Em, Bm, D, G, A

당신은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사람



E, B, C, G, Am

사막에 샘이넘쳐 흐르리라



G, C, Em, Am, D

주님 가신길



- 3.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남의 영혼
 - 4.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서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 내소서



G, C, E, Am, Dm, F

할수있다 하신이



C, F, G

오 신실하신주



실로암



C, F, D, G

주여 이 죄인이



A, F#m, Bm, E7, D 하나님 어린양 독생자 예수



여러분은 연주 중에 지금껏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곡을 갑작스레 연주해 본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연주 자들이 한 두 번씩은 그러한 상황을 경험해 보았을 거에요. 악보를 구해 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악보마저도 구하지 못한 그런 상황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뮤지션들이 음악을 분위기만 알면 즉흥 연주가 되는 줄로 오해 하고 계시죠. 바로 그런 때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쨘!

어느 곡이든 한 곡에 사용되는 코드는 I 도. IV도. V도세븐(V7). 이다.

물론 이 공식은 악보를 구할 수 없고 들어 본적도 없고 그래서 카피도 불가능한데 지금 당장 연주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악보가 없다면 리더나 - 대부분 키보드나 피아노일 것이다 - 스타트 연주자가 맘대로 (다행히 청음이 좋아서 싱어의 키를 따라가는 것을 포함하여) 키를 결정 할 것이고 키가 결정이 되었으면 1 도, 4 도, 5 도세븐 요세가지 코드를 돌려 가면서 연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C 키로 시작한다면,	C - F - G7
D "	D - G - A7
E "	E - A - B7
F "	F - Bb - C7 (여기서 Bb 은 F 조가 b 이 시에 붙어 있기 때문)
G "	G - C - D7
Α "	A - D - E7
В "	B - E - F#7 (여기서 F#7도 마찬가지로 파에 # 이 붙어 있음)

[펌] 우하하... 쉽다...

모르는 곡이라도 두려워 할 것이 없다.

어차피 3개의 코드 진행으로 곡 하나를 다 끝낼 수 있으니까 말이다.

어? 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

설사 C 키로 시작 했다 하드라도 다음 코드가 F 인지 G7 인지 어떻게 알아? 하실 분들 말이다.

어차피 모르는 곡이니까 대충 통밥 굴려야 한다.

C 키로 연주를 시작 했으니까 다음은 F 나 G7 중 둘 하나이고 우리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은 50%이다. F 을 쳐봐서 어울리면 그냥 치고 안 어울리면 잽싸게 G7 을 치면 된다.

그것이 듣기에 거슬리다 하면 곡을 따라 가는 청음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

나는 교회나 선교단 등에서 연주 시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안 들어본 곡이 나오면, 내가 클래식 기타 연주자 이기 때문에 악보 보는 것은 자신 있는데 거의 나에게는 악보가 올 겨를이 없다. 사람들이 대부분 나에게는 악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은 그만 두라는 무언의 암시인지도 모르겠고... 흑흑, 잽싸게 왼손가락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1.4.5 도세븐을 찾아낸다.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잡힌다.

